

## 朝鮮朝 濟州教育思想史 研究

—道統을 중심으로—

梁 鎭 健\*

### I. 緒 論

본 연구는 필자의 「朝鮮朝 濟州教育의 精神史的 系譜」<sup>1)</sup> 및 「朝鮮朝 濟州教育의 精神史的 展開」<sup>2)</sup>를 확대·보충하는 글로서 「秋史의 濟州教學活動 研究」<sup>3)</sup>와 함께 조선조의 제주교육의 전개과정을 교육사상사적 측면에서 해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기왕의 제주교육사에 대한 연구업적<sup>4)</sup>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대개가 비전공자의 손에서 갈무리된 감이 없지 않으며 또한 제도사적 연구에 치중된 감이 많다.

교육의 사상사적 연구는 그 어떤 한 시대의 교육의 의지를 그 시대의 사회사상의 흐름이나 시대정신 속에서, 그리고 교육가 또는 교육론자의 교육

\* 濟州大學校 講師. 교육철학 및 사상사 전공

본고의 집필을 배려해주신 신행철, 이청규님께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미비점을 지적해주신 오문복, 김항구, 조성윤, 김지홍님께 또한 사의를 표한다. 향토교육사의 관심에 격려를 해주신 계명대 신득렬님께도 늦게나마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 1) 제주도 연구회 제26차 연구발표회(제주우당도서관, 1986. 9. 27) 발표요지
- 2) 제대신문 제304호
- 3) 「탐라 문화」 제 6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2)
- 4) 「제주교육통사」(제주도 교육연구원, 1974)와 「제주교육사」(제주도 교육위원회, 1979)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강석규, 제주의 향토교육의 사적 고찰(고려대 교육대학원, 1977) 현인홍, 본도 교육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소고(제대학보 3. 1967) 김종업, 조선조 제주도교육에 대한 논고(제주대 논문집 9. 1978) 등이 있다.

사업과 교육정신 속에서 교육의 의의와 가치를 찾으려는 연구이다. 따라서 교육의 사상사적 연구는 시대정신이나 시대사조 그리고 특정사상가의 정신 등에서 교육적 가치를 찾게 된다.

조선조의 제주교육을 이해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교육사의 이해는 인간교육에 대한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교육사상사와 교육제도사가 문제시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의 제주교육을 이해함에 있어 소홀했던 사상사 체계의 정립을 위해 교육의 사상사적 연구에 주력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사를 정신의 변천사로 이해하고 특히 이와 같은 정신이 조선조의 교학사상 체계와 제주유림이 접맥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표출·변천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코자 한다.

조선조 제주교육사상의 서술상 조선조의 교학사상체계와 제주유림이 접맥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유배인들의 활동에 대해 많은 章을 할애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주도에 특정 사상가 등이 부재한 이유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선조 제주도의 정치 환경 및 교육 환경적 특징을 대변해 주는 사례들이기도 하다. 즉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지역 편중의 교육을 실시했던 조선조의 국가 교학질서적 특징은 제주도를 지리적 여건에 맞추어 일차적으로 유배지로 한정시켰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 자체의 사상적 생산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건하에 유배인들의 내도는 제주도에 사상의 다양성을 안내 하였으며 결국 정신의 생산성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인 바 이런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제주 교육사 서술에 있어 유배인들의 위치는 중요한 것이며 제주도에 대한 조선조 교학사상 체계의 궁극적인 매개자라는 점에서 유배인들과 제주유림이 만나는 과정은 새로운 조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까지의 조선조의 제주교육에 대한 사상사류의 논의<sup>5)</sup>는 몇몇 개별 인

5) 김봉욱(제주교육통사) 김중업(담라문화사) 혹은 김태능(제주도사 논고) 박용후(제주도지) 등의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사상사적 논의는 되고 있지 못하다.

물들에 대한 평전 형식에 머물고 있었으며 유배인들과 제주유림의 접맥과정 등에 대해서는 기계론적이며 단속적인, 단순한 기술들만이 있을 뿐 조선조 교학사상체계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포괄적이며 논리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유배인의 활동을 유배지의 척박한 땅에 대한 일개인의 恩典으로 이해할 위험을 낳게하며 나아가 조선조의 제주도를 의식의 변경으로 못 박음과 동시에 제주 사상사의 역동적 흐름 자체를 부정하는 과오를 자초하게 된다. 조선조 교학사상체계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제주 교육을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은 제주교육사상사라는 연구논제가 '제주도'라는 지역성을 띠어 편협한 향토사 연구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까지나 민족사의 발전과정에서 제주지방 또는 제주유림이 어떻게 작용하고 대응해 나갔느냐 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다.

조선조의 교학사상체제는 道統으로 대표되는데 도통이란 쉽게 말하여 성리학적 사상의 정당한 질서체계이자 계보로서 조선조 유학정신의 귀결점이라 할 수 있다. 도통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제관계의 淵源으로서 이러한 도통론은 조선조 유학교육의 특색이며 성리학적 교육정신은 바로 이 도통론에 의하여 집약되어 표현된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조선조의 교육을 논함에 있어 도통은 논의의 증거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교육사상사의 전제조건인 도통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조 교학질서체계인 도통과 유배인들의 교학사상이 어떻게 연계되며 또한 그 연계된 도통의 영향력들이 제주도에서 유림을 상대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검토해 봄으로써 조선조 교학사상체계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제주 교육의 사상사적 의의와 가치를 찾고자 한다.

## Ⅱ. 本 論

### 1. 조선조의 교학사상

조선 왕조의 개막은 왕조 교체로서의 의의 이상으로 국가 교학 질서의 재편성이라는 뜻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조선조 교학사상의 주류와 중축

은 전적으로 성리학에 의지하였는데 성리학은 인생과 우주의 근원을 형이상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한 유가철학의 일파로서 다분히 학구적인 이념이었다. 이러한 성리학의 도입 발달은 대외적으로는 원명교체라는 동아시아적 질서의 재편성과 대내적으로는 여말의 정치·사회적인 모순과 깊게 관련되고 있는데 여말의 신흥 사대부들은 역성혁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는데 성리학적 이념을 도입하였으며 마침내 이를 관학화시키고 새로운 왕조의 이데올로기로 삼기에 이른 것이다.

원래 성리학은 예교적 측면과 정교적 측면의 두가지 실천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교가 성리학의 윤리 교육적인 길이라면 정교는 정치 교육적인 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리학의 예교적 측면은 사림파에 의하여 조선 왕조의 교학 체제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정교적 측면은 훈구파에 의하여 조선 왕조 창건에 이념적 기반이 되었는데 야은 길재를 필두로 하여 연원적인 발전을 보인 사림파들이 한국 유학의 정통성을 대표하게 된다. 이것은 곧 정교적 측면의 지치주의적 경세 유학이 기묘사화를 고비로 하여 퇴색되고 예교적 측면의 수양주의적 심성유학의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뜻하는데 특히 퇴계와 율곡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 성리학의 발전은 성리학적 교학체제의 정착을 이룩하는 연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성리학의 발달 단계를 구분할 때 15세기를 정교 이데올로기 시대, 16세기를 心學的 인간관의 시대, 17세기를 禮學的 질서이념의 시대, 18세기를 實學的 이용후생의 시대<sup>6)</sup>라고 하는데 15세기의 理學的 강조는 강력한 군주권의 확립에 있었고 16세기 심학의 대두는 절의와 명분이라는 주자학적 가치관의 정립에 있었으며 17세기의 예학의 등장은 심학이 인간의 내재적 질서의 개인 윤리를 강조하는데 대해 외재적인 질서의 사회 윤리를 표방하였으며 18세기의 실학은 성리학적 인간관과 세계관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사상적인 반정운동이었다.

특히 16세기는 양반 계층에 있어서는 일종의 철학의 생활화 시대였는데 이때에 퇴계를 전후하여 일군의 탁월한 학자들이 배출되어 사상의 일대 향

6) 정순목, 퇴계의 교육철학(서울 ; 지식산업사, 1986) p. 294.

연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과 문화의 난숙한 꽃을 피우게 된다. 보통 이 때(中宗~肅宗, 1507~1724)를 조선조 교육의 시대구분상 제 1기의 교육정립기(太祖~成宗, 1392~1506)를 이어받아 교육의 내용이 난숙하게 꽃핀 제 2기의 교육내용발전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교육가들의 철학사상이 발전되었고 혼육이념이 多端하였고 교수방법이 진보되었고 학교의 제도와 學規가 속출하였으며 사학이 왕성하고 학자가 배출」<sup>7)</sup>된 시기였다.

理氣心性論은 그러한 안정기에 나타난 시대 철학으로서 산림 철학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시대정신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고 임진(1592), 병자(1936)의 큰 난리를 치루고 나서 사상계의 분열은 격화되어 학문은 드디어 경쟁의 도구가 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회적인 혼란과 모순을 질서화하자면 규범의 철학과 그 실천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는데 17세기, 도덕 규범학이자 윤리 실천학인 예학의 등장은 이러한 시대상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렇게 성리학은 시대를 달리하여 理學, 心學, 禮學, 實學 등의 상이한 시대정신을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성리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5세기 부터 18세기에 걸쳐 나타난 각각의 시대 정신의 교육적 표현을 구체적인 인격 속에서 찾으려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이 이른바 도통원원이다. 구체적인 인격 속에서 교육적 표현을 찾으려 하였다는 지적은 달리 말하자면 사람의 길(君子學)을 찾는 것이 성리학의 교육 철학적 이념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즉 군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됨의 길이 교육의 목적이었고 이를 실현시키는 교육적 덕목(삼강·오륜)이 강조되었다는 말이다. 이른바 성리학은 유가적 덕치주의의 완성을 목표로 교육 철학적 측면에서 명분론을 강조하였던 것인데 그러한 명분론의 근거가 곧 도통론이었던 것이다.

## 2. 조선조의 도통론

도통이란 쉽게 말하여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정당한 질서이고 계보이다. 유학의 도통을 세운 사람은 공자인데 유학의 특색인 도통론은 학문과 사상

7) 李萬註, 朝鮮教育史(上)(서울; 율유문화사, 1947) p. 145.

의 정통성만이 아니라 역대 제왕가의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이었다. 공자, 맹자 그리고 주염계, 장횡거, 정이천 나아가 주자로 이어지는 유학의 흐름은 곧 이러한 도통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한국 유학의 도통을 확립한 사람은 퇴계로서 그는 곧 정몽주→우탁→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학연원을 한국 성리학의 도통으로 확정하였다. 퇴계 이후 이른바 5현으로 불리우는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의 도통 계보가 형성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그 당시 국론으로 정한 것이지만 한 두 사람의 제창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한국 유학의 도통인물들은 태조에서 고종(1392~1894)에 이르기 까지 약 75명이 거론되는데 이는 文廟配享儒賢 및 書院配享儒賢 모두를 총괄한 숫자이다. 도통은 특히 문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원래 문묘는 유학에 공이 있는 성현들의 신위를 모셔놓고 때에 따라 제향하는 제도로서 국가의 中祀였다. 문묘제도가 실시된 것은 고려 성종때 부터였는데 성종 11년에 국자감이 창립될 때 문묘가 국자감 안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조의 문묘는 불교세력에 눌려 국가의 중심 제전이 되지 못하다가 여말에 신진학자들이 불교의 세력을 누르고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자 문묘가 제 구실을 하게 되었다.<sup>8)</sup>

조선조에 들어서면 중사인 문묘가 대사인 宗廟를 능가할 정도로 위력과 힘을 갖게 되는데<sup>9)</sup>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는 모두 문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선비들이 매 초하루 보름마다 삭망제를 지내고 春秋仲中에는 석존제를 지냈다. 문묘에 배향된 우리 나라의 유현은 18명으로서 성리학 전래이전의 학자는 설총과 최치원 두 사람이며 나머지 16명은 모두 성리학적 분위기 속에서 학문을 연마한 학자들로서 도통연원을 따라서 문묘에 배향되어 있다.

8) 이상백, 이상백저작집 권 1, 한국문화사 연구논고(울유문화사, 1972) pp. 33-35.

9) 天下之通祀，惟文廟爲是，國家內自國都，外至州郡皆建廟學，當春秋二仲月上丁之日祀之，……，惟聖教之在天下如日月之行乎天，百王以爲儀範萬世以之爲師表(三峯集，卷朝鮮經國典，禮典，文廟條)

이 때문에 조선조 문묘는 도통적 성격이 강했으며 그래서 성리학적 도통과 관련이 없는 설총과 최치원은 문묘에서 黜享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선비들 사이에서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문묘가 도통 일변도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은 성리학 자체가 밖으로의 이단 배척과 안으로의 도통확립을 학문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성리학이 전래되어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여말부터 문묘를 중심으로 격렬한 이단 배척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단 배척의 선봉은 항상 문묘에서 공부하고 있는 성균관 유생들이었다.<sup>10)</sup> 그들은 上疏, 捲堂, 空館 등의 집단적인 시위를 통해서 그들의 뜻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밖으로의 이단 배척과 아울러 안으로는 선비들 사이에 도통의 확립을 둘러싸고 술한 학문적인 논쟁이 전개 되었다. 양명학의 배척, 이설에 대한 기문난적의 시비, 주리 주기의 논쟁, 호락논쟁 등이 그것이다.

조선조의 학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영예는 문묘에 배향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문묘배향을 둘러싸고 많은 시비가 일어났다. 각 학파에 따라서 문묘종사를 주장하는 인물들이 다른 경우가 많았으며 그래서 울곡과 우제가 문묘에 배향되었다가(숙종 7년) 출향되고(숙종 15년) 다시 배향되는(숙종 20년)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던 것이다.<sup>11)</sup> 이 이후에는 문묘종사 논의가 있을 때 마다 전국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 몇 백명씩 합동으로 상소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묘종사의 심각성을 조금 완화해줄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서원이었다. 서원에서는 문묘종사와는 달리 어느정도 자유롭게 모시고 싶은 유현들을 모셔 놓고 향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수 백명에 달하는 유현들이 전국 각처 서원에 모셔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원향사에도 賜額·非賜額의 구분이 있어 향사의 경중이 달랐다. 祀典의 경중으로 보면 문묘보다 한 등급 낮은 것이 사액서원 향사이었고 또 한 등급 낮은 것이 비사액서원 향사였다.

10) 이성무, 조선초기 성균관연구(역사학보, 35-36 합집) p. 228.

11) 김상오, 당쟁사의 입장에서 본 李珥의 문묘종사문제(전북사학, 제 4집) 참고

이러한 이유에서 도통은 문묘배향 유현의 계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배향 유현의 계보도 함께 포함되는데 문묘배향 유현의 계보 만으로는 16명이지만 서원배향 유현을 포함시킬 때 약 75여명의 도통이 실질적 제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과 사상의 계보인 도통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제관계의 淵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조의 교학사상이 왜 이렇게 사제관계를 강조하게 되었으며 즉 도통적 성격을 띠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조선조 교학질서의 규명을 위한 실마리가 된다. 나아가 조선조 제주교육사상사의 이해를 위한 자리 마련도 아울러 보장되는 셈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제주도에 유배온 유배인들의 경우 대개가 도통유현들과 학통의 사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과 제주 유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사제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제관계를 강조하게 된데에는 우선 선조부터 시작된 흥학정책의 결과로 전군현에 향교가 설립되어 유생의 숫자가 급팽창하게 된데서 찾아볼 수 있다.<sup>12)</sup> 이와 아울러 문음보다 과거를 우선하는 정책을 폈에 따라 관인으로서의 진출이 실력위주로 변해 급제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과거준비를 위해서 선생 밑에서 수학하는 기간 또한 길어지게 되었던 것도<sup>13)</sup> 그 원인 가운데 하나다. 또한 학문의 내용이 성리학 일변도였기 때문에 자연히 사제관계가 강조되었는데 본래 성리학 자체가 사제의 도통전수를 통해서 계승되기 때문에 성리학을 배우는 사람의 학적 임무는 스승으로부터 도를 전해 받아서 제자에게 도를 전해주는 繼往開來였던 것이다.<sup>14)</sup> 이러한 여러 이유에

12) 태종 6년(1406)에 관인 교관에 의해 수업을 받은 학생수가 1,360명인데 비해 성종 5년(1474) 경국대전에 나타나 있는 학생수는 15,040명에 도달해 있다. 지방향교 학생 정원의 증감을 보자면 행정구역상 旣인 경우 태종 6년에는 40명에 불과하다가 성종때에는 90명이 되고 縣인 경우 15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한다.

13) 문과합격 연령이 國朝文科榜目에 의거해 보면 태조 2년(1393)에 19세~29세(30명) 중종(1506~1516)때 19세~40세초(89명), 선조(1567~1577)때 22세~50세(263명) 등으로 점차 합격 연령이 노령화되고 아울러 합격인원도 많아지고 있다.

14) 울곡의 聖學輯要의 구성은 결론이 도통편으로 되어 있으며 「必使斯道大明而



서 사제관계가 성숙되어가던 중 무오사화가 일어남으로서 스승의 죄 때문에 무고한 제자도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사제관계는 학문의 전수에서 생사의 관계로까지 심화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비들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선비가 선비인 까닭이 사제의 인륜 때문인데 그래서 선비들의 공식명칭은 儒生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사제관계는 조선조 식자들의 삶의 기본전제가 되었던 것이며 조선조 교학사상의 특징을 이루게 된 것이다.

### 3. 도통과 제주유배인들의 관계

조선조 형벌제도의 하나로서 유배는 그 발생이 주로 정치적 상황인 당쟁에 기인한 것이 지배적이며 정치를 통하여 참정하고 집권한 자가 정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행정적 소산이었다. 유배는 정치적으로 중죄를 범한 자에게 사형까지는 과하지 않고 원격지로 보내어 종신토록 다시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서 특히 제주도과 같은 섬에는 죄명이 특별히 중한 자들에게 행당이 되었었다. 당쟁이라는 조선조 특유의 정치적 메카니즘은 우승투쟁의 성격을 띤 일종의 생존경쟁으로서 이 경쟁에서 결과된 유배제도는 조선조 정치인의 현실에의 집착을 거세시켜 버리고 정치인의 의미성과 존재성을 박탈하는 기능을 하였다.

유배로 인한 외로움과 절망감은 많은 유배자들에게 자기 상실의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유배인들이야말로 문화전달의 messenger 였다. 지리적인 이유로 조선조의 제주도는 행정적, 문화적 소외가 당연시되었던 지역이었으며 특히 교육적 소외는 그 심도가 컸는데 사화와 당쟁 등의 정변으로 인하여 고위 정객과 지식인들이 제주도에 유배를 와서 직접 간접으로 제주도민들의 학문과 예절을 교화함으로써 제주도의 문화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배인들에 의하여 학문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절과 생활방식 등에도 심대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며 더구나 유배인 중에는 석방되지 못하여 일생을

大行, 比接道統之傳, 萬世幸甚」으로 도통전수를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지낸 자와 혹은 도민들과의 혈연관계를 이루어 자손들을 낳은 자도 있었던 바 유배인들은 지식인이요 문화인이었으므로 계속하여 제주도의 학문발전과 문화향상에 관계되고 공헌되었던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조선조에 들어 제주도에 유배은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즉 閔無咎, 閔無疾, 金舜孫, 洪裕孫, 柳軒, 洪常, 李世蕃, 金淨, 李忠綽, 普雨, 李弘老, 宋象仁, 鄭蘊, 延興府夫人(仁穆大妃 모친), 李瀆, 申翊聖, 趙漫, 李健(海原君), 李億(海安君), 光海君, 李佶(海平君), 洪茂積, 李石鐵(慶善君) 3兄弟, 李敬輿, 申得淵, 申命圭, 李焜(臨昌君)兄弟, 柳赫然, 宋時烈, 金嶺龜, 張希載, 閔黯, 吳始復, 金春澤, 李健命, 申鉉, 柳星樞, 李顯章, 尹志, 李眞儒, 任徵夏, 趙觀彬, 金聖鐸, 李奎采, 李增(驢川君), 李存中, 趙英順, 沈來復, 申思運, 韓光肇, 徐志修, 宋文載, 任觀周, 尹塾, 李祔(思彥君)兄弟, 趙貞喆, 丁蘭珠, 洪樂任, 金正喜, 李明燦(教應), 白樂萃, 金始淵, 李夏銓<sup>15)</sup> 등이다. 이밖에 柳希春이나 崔益鉉도 거론되어야 하리라 본다.<sup>16)</sup>

이들 중 비교적 제주도의 교학질서 편성과 관계깊은 사람은 홍유손, 이세번, 김정, 윤희춘, 송상인, 정은, 이익, 홍무적, 신득연, 신명규, 송시열, 김진구, 김춘택, 신임, 임징하, 이준중, 조정철, 김정희, 최익현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유배인과 도통인물들과의 관계는 조선조의 제주교육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만약 그러한 관계맺음을 간과하게 되면 유배인들의 교학활동 및 교학사상을 독자적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를 남게 되고 나아가 조선조의 제주교육의 모습을 조선조의 전체적인 교학질서 체계와는 격리

15) 홍순만, 조선말기 제주도의 유배인과 형사제도(제주도연구회 제 2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 '제주도사의 재조명') p. 64. 필자의 조사는 홍순만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데 이를테면 申翊聖, 李敬輿, 趙英順 등에 대해서는 제주유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필자의 조사로는 이경여는 진도, 조영순은 갑산에 유배되었었다. 김태능은 이경여를 제주유배인으로 보았으나 진도의 봉암사에 제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진도유배가 아닌가 사려된다. 앞으로의 보완작업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이 부분이 논의되어야 하리라 본다.

16) 고창석은 조선조의 유형제도와 제주도(담라문화 제 5호; 제주대 담라문화연구소 1986. 5)에서 제주 유배인 수를 2백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된 어떤 것으로 상정할 우려가 있게되는 것이다. 결코 유배인들의 교학활동 및 교학사상은 그들 개인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조선조의 제주교육은 조선조의 전체적 교학질서 체계와 격리된 별개의 어떤 것이 아닌 도통이라는 학문과 사상의 커다란 질서체계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즉 유배인들은 도통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았으며 이러한 도통의 영향력은 유배인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제주의 교학질서 속으로 전개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통의 영향력이란 좁게는 사제관계를 의미하며 넓게는 말 그대로 교학사상적 영향력을 의미하는데 원래 사제관계란 직접 수업하여 맺어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단순히 이러한 執贊(弟子禮를 통한 執經受業)라는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대면이 없는 서한교육(問目)만으로도 사제관계는 성립될 수 있었으며 또 한번의 禮訪으로도 가능하였다. 座主와 門生, 成均教官과 儒生, 書信往來 및 한두번 방문하여 학문적인 질의와 토론 등의 관계에서 사제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의 영향력이란 의미는 좀더 포괄적이며 다양한 관계맺음을 내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배인 홍유손은 「佔畢齋集」 소재 門人錄에 의거해 보면 金宗直의 제자로서 역시 김종직의 제자인 南孝溫과 더불어 이른바 죽림칠현의 한사람이다. 도통의 김종직은 영남사람과의 우뚝한 봉우리였는데 홍유손은 김종직학과<sup>17)</sup>의 初傳(제 1대 제자)이 되는 셈으로써 이러한 홍유손의 제주유배는 제주정신사에 파랑을 일게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김종직의 제자는 아니지만 홍유손과 함께 더불어 기억되어야 할 인물이 李約東인데 그는 김종직의 절친한 친구로서 김종직이가 29세에 문과에 급제하자 榮親宴을 베풀었을 때 가장 먼저 참석하는<sup>18)</sup> 등 학문과 사상의 독특한 교분관계를 갖으며 훗날 제주목사로 부임했을 때는 남다른 의욕으로 제주교육을 위해 헌신을 한다. 이렇

17) 학통은 도통에서 유래된 유현에서 파생되어 각기 학문의 開山祖를 갖는 도통의 축소명칭이며 학파란 학통의 개산조 이후 初傳(제 1대 제자) 再傳……6진식으로 계승발전되게 된다. 그리고 각 傳에서의 高足(제 1인자)을 嫡傳이라고 부른다.

18) 「佔畢齋先生年譜」 참조. 당시 이약동은 淸道郡守였다.

듯 홍유손이나 이약동을 통해 김종직계의 도통의 영향력이 제주에 전파되었던 것이다.

도통의 계보상으로 김종직을 잇는 인물로 金宏弼과 鄭汝昌이 있는데 유배인 이세번은 김굉필의 師友門人錄(「景賢錄」下)에 趙光祖와 더불어 김굉필의 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김굉필의 문인은 기호지방 출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세번이가 그 중 한사람이다.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이세번은 古阜李氏 제주 入島祖로서 그가 입은 도통의 영향력을 자신의 家統을 통해 제주에 전파한다. 이세번의 제주유배는 동문인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인해 화를 입게되자 무죄를 탄원하다가 비롯된 것으로서 김굉필을 이어 조광조로 연결되는 도통의 영향력을 이세번은 충실하게 입고 있었던 것이다.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전개되는 도통은 조광조의 至治主義의 좌절과 기묘사화로 인해 시련을 맞게되는데 조광조의 이른 팔격인 金淨도 이때 화를 입게되어 제주에 유배를 오게 된다.<sup>19)</sup> 「천지의 위대한 덕을 생이라고 하였다. 천지가 천지 노릇한 까닭은 단지 生의 理요 生의 理는 亘古不息하여 사람에게 있어서는 仁이요 사람이 仁함에 혹 한 숨쉬는 사이의 틈이 있어도 仁道는 거의 죽게되니 一念의 미미함에도 모두 生理를 지니고 있다」<sup>20)</sup>며 生生哲學이라는 독특한 사상관을 피력했던 김정은 지치(인격 수양의 최대 실현·왕도 사회의 궁극적 실현)를 목표로 조광조와 함께 과감한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다가 화를 입게된 것이지만 그의 제주 유배는 제주 교학사상의 또 다른 획을 긋게된 사건이었던 것이다. 하여 제주에서는 그를 제주 5현의 한사람으로 그의 영향력을 기록하고 있다.

김굉필의 제자로서 조광조와 함께 도통의 한 서열을 점하고 있는 이가 金安國인데 김안국은 도통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인종의 宗廟에 배향된 왕통배

19) 朴世采 「東儒師友錄」(卷之九) 참조.

20) 天地之大德曰生, 天地之所以爲天地, 只是生生之理, 而生生之理, 亘古不息, 而在人則仁, 人之爲仁, 或有一息之間斷, 則仁道幾乎廢矣, 一念之微, 皆有生理(中宗實錄, 中宗 12年 8月)

향유현<sup>21)</sup>이기도 한 사람이다. 유배인 유희춘은 이러한 김안국의 초전<sup>22)</sup>으로서 스승의 영향력을 간접적이거나 제주에 전파하게 된다. 이러한 김안국의 도통의 영향력은 비단 유희춘만이 아니라 김안국의 제자이면서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沈連源<sup>23)</sup>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심연원 같은 이는 제주교육을 위하여 남문성 안에 鄉學堂을 설립하기도 하여 도통의 흐름을 전수하였다.

조광조의 도통 흐름은 成守琛으로 이어지고 성수침은 다시 成渾과 이어지는데 성훈과 제주 유배인들과는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 유배인 홍무적이나 신명규, 신득연 혹은 송상인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성훈의 학통과 관련되고 있는데 홍무적은 성훈학파의 초전적 인물이다.<sup>24)</sup> 또한 신명규는 직접 성훈에게 가르침을 받은 바는 없지만 그의 아버지 신민일이 성훈의 제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sup>25)</sup> 성훈의 학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되며 또한 송상인은 성훈을 위해 상소를 했고 그것 때문에 유배를 당하게 된 점을 미루어 보아 그 역시 성훈의 학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득연도 신명규와 같이 직접 성훈에게 가르침을 받은 바 없지만 그의 아버지 申滉이 성훈의 제자인 점으로 미루어 같은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같이 도통과 유배인들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그 관계맺음의 양상이 실로 다양·다기한 것이다. 이를 편의상 도식화시켜 보면 p.754의 그림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성훈과 비슷한 시대의 도통인물로서 李滄, 李珥, 曹植 등이 있는데 제주 유배인 가운데 이익은 이황과 관련을 맺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익의 스승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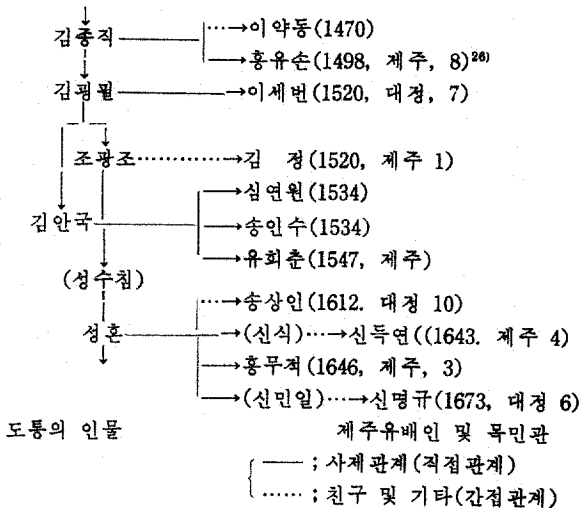
21) 조선조의 교육사상사를 다룸에 있어 일차 道統이 문제되는데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王統의 영향력 또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제주교육사상사의 검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본고는 논의의 필요상 王統의 영향력은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 이부분은 필자의 「조선조 제주교육사상사연구 - 王統을 중심으로 -」 편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22) 박세채, 전계서(卷之十二) 참조.

23) 박세채, 전계서(卷之十二) 참조, 金甯, 海東名臣錄(卷二, 卷五) 참조.

24) 박세채, 전계서(後集 卷之四) 참조.

25) 박세채, 전계서(卷之三) 참조.



이 되는 鄭述<sup>27)</sup>는 도통의 인물로서 조선조 성리학의 핵심세력인 이황의 제자인데 정구로 본다면 이익은 정구 학파의 초전이 되지만 이황으로부터 따지자면 이익은 이황 학파의 재전(제 2대 제자)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유배인 이익과 같은 처지로 제주에 머물며 이익과 교호했던 정은 또한 재전적 역할을 담당했는데 즉 정은의 스승이 정인홍이었으며<sup>28)</sup> 정인홍은 도통의 조식의 제자였기에 이른바 정은은 조식 학파의 재전이 되는 것이었다.

이렇듯 제주 유배인들과 도통유현들과의 관련은 초전, 재전 양식이 많은데, 그러나 도통의 인물로서 직접 제주에 내도를 하여 제주의 정신사를 자극 시킨 인물들도 몇 있다. 김상헌이나 송시열, 최익현이가 그렇고 기정진<sup>29)</sup> 또한 제주유림과 직접적인 관계형성을 도모한다. 김상헌은 김식→김덕

26) (1498, 제주, 8)은 1498년에 제주에 유배를 와서 8년을 지냈다는 표시이다.

이밖에 이약동(1470)은 이약동이 제주목사로 부임한 해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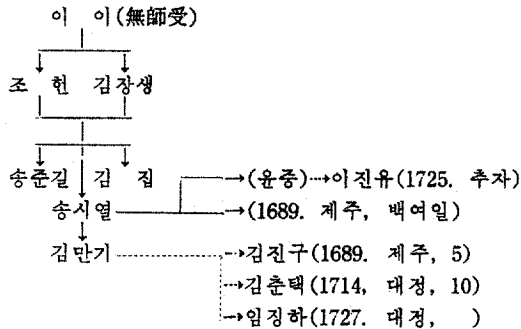
27) 박세채, 전계서(補遺目錄 下編) 참조, 오문복은 오현의 발자취(제주도, 통권 1호)에서 이황→정구→정은의 계보를 얘기했으나 이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김육은 해동명신록에서 조식→정은으로 얘기하고 있다.

28) 김육, 전계서(卷八) 참조.

29) 필자가 참고한 제주도 교육연구원편 '제주교육통사'를 보면 제주유림에 도통의 인물인 奇正鎭의 제자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관계에서 기

수→윤근수→김상헌→박세채로 이어지는 도통계보를 형성하였으며 목민관으로서 그의 부임(1601년)은 제주의 교학질서에 신선한 충격이 된다. 또한 김상헌의 제자인 박세채에게는 신임(1722, 제주, 12)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1673년에 대정에 유배를 왔던 신명규의 아들로서 그 또한 제주 유배인이 되어 제주의 정신사를 도통의 영향 아래 살찌우는데 일익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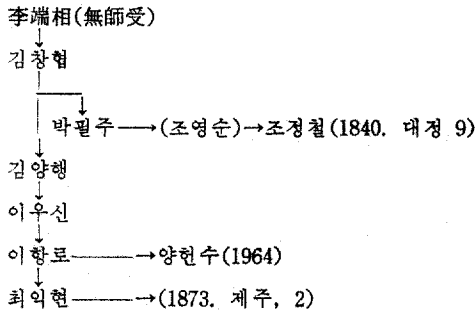
이이의 영향은 송시열을 통해 나타나는데 김장생을 스승으로 모신지 1년 만에 스승이 사망하자 김장생의 아들 김집에게 사사를 한 송시열은 도통의 인물로서 비록 백여일 밖에는 제주에 머무르지 않지만 그의 무계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내도 자체가 하나의 충격이었을 것이다. 송시열에게는 윤증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의 제문문제로 송시열은 제자 윤증과 크게 불화를 빚게되어 결국 이 불화는 노론·소론의 파갈림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윤증의 제자가운데 한사람이 유배인 이진유인데 결과적으로 송시열과 함께 재진적 인물인 이진유가 제주에 영향을 끼쳤던 셈이다. 그러나 주목해야될 송시열의 제자는 김만기인데 그는 도통의 굵은 인물로서 그의 아들인 김진구와 손자인 김춘택, 손자사위가 되는 임징하 등이 유배를 오게 되어 김만기의 도통적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진과 사계맺음이 되었는지는 기록이 안되어 있고 필자 또한 이 부분을 해명할 길이 여의치가 못했다.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탓으로 본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급으로 그쳤다.

김만기의 도통적 영향력이란 다름아닌 無師受의 이이에서부터 김장생을 통해 김집, 송시열을 거쳐 김만기로 이어진 기호학과 즉 이이학과의 전통인 것이다. 이이학과의 전통은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가 된다.

이밖에 유배인 이존중(1751, 정의, 2)이는 李穡의 제자로서 영향력을 전개하는데 이계의 제자로서 도통의 인물 중에 金元行이라는 인물이 또한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유배인 김정희(1840, 대정, 10)의 실사구시적 사상 형성이 홍대용→박지원→박제가→김정희로 이어져 된 것으로서 홍대용의 스승이 김원행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원행의 할아버지가 되는 金昌協 또한 도통의 인물로서 朴弼周의 스승이 되는데 유배인 조정철(1840, 대정, 9)의 아버지인 조영순이가 박필주의 제자인 점으로 미루어 조정철 또한 간접적으로나마 박필주의 영향을 입었으리라 짐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김창협(1840, 대정, 9)의 도통계 보는 한말에 이르러 이항로→최익현으로 이어지는데 이항로는 목민관이었던 양현수(1864)라는 제자를 통해 도통을 전파하고 이어 최익현은 유배인으로서 직접 내도함으로써 김상헌, 송시열과 마찬가지로 도통의 인물로서 그 영향력을 과시한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간단히 도식화시킬 수 있겠다.



이상으로 도통과 제주 유배인들과의 관계를 거칠게나마 조감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진술하였듯이 매우 밀접하고 나아가 철저한 느낌마저 든다. 이러한 유학사상의 맥은 어느 한 두 사람의 손에서 이어지거나 혹은 끊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줄기찬 의미의 집중성이며 역사적 흐름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대한 올바른 조명이야말로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며 조선조 제주교육의 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되는 것이다. 결국 조선조의 제주교육은 지리적인 격리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조의 전체적인 교학질서 체계와 동계의 흐름을 갖출 수 있었는데 이것은 도통과 유배인들의 적절한 관계맺음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수 있다.

#### 4. 조선조 제주교육의 전개

유배인 홍유손의 스승이자 목민관 이약동의 친구인 김종직은 「小學」을 학문의 기초로 삼았고 소학중심의 실천도학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은 홍유손이나 이약동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홍유손은 사제의 인륜에 도리를 다하기 위해 스승의 학풍을 거역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의 제주 유배시 초세속적인 초연한 태도와 거침없는 詩文은 경탄의 대상이었는데 이것은 崇兼聽·勵節義할 것을 교학의 근본 과제로 삼았던 사림파들의 예교 명분론적 태도이기도 한 것이다. 이약동의 경우에는 제주목사 재임시 제주 유생들이 향학열은 있으나 좋은 교수가 없어서 학문이 성숙 대성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몸소 經書를 교수하기도 하고 임기가 끝나서도 제주 유생의 교육문제를 걱정하여 제주목사는 문무 겸비한 인재를 보내어 민치와 교학을 겸행하여 인재 양성에 노력하도록 상제하였던<sup>30)</sup> 점으로 미루어 立敎之序의 소학정신을 나름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던 흔적이 보이고 이것은 결국 김종직의 영향력 아래서 키워진 것이라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김종직과 더불어 소학운동을 펼쳤던 김굉필은 소학동자라 불리울 정도로 소학을 중시했고 나아가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의 제자들인 조광조·김안국 등에 의하여 소학 읽기가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이러한 김굉필의 제자였던 이세번은 제주 유배를 통해 조선조 제주교학사상사의 커다란 학맥을 형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그의 학맥형성은 그가 고부 이씨 제주 입도조가 됨으로써 가통을 통해 전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도통유현의 영향

30) 濟州人願學者多然，無師受不能成就 臣爲牧使治事之暇 敎以經書 今若三邑三邑 守宰 文貳交差 以治以敎 則人材亦出矣(成宗實錄 8년 윤 2월 경자)

려운 도통유현을 개산조로한 학통 형식으로 전개되기 마련인데 이세번에게 끼친 김굉필 등의 도통의 영향력은 학통이나 학파를 형성하는 대신 가통의 흐름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의 가통의 영향력은 커서 주로 대정향교를 근간으로 하여 대정지방에서 문풍의 위세를 떨쳤다. 그의 가통의 인물들은 대정이나 제주향교의 교수가 되어 후진 교육에 일익을 담당했고 이세번의 12세손이 되는 李在喬 같은 이는 대정군내에서 근대학교의 시초가 되는 사설 開成學校를 증문에 설립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교학적 흐름들은 제주에 유배될 때 경서 등 많은 책을 가지고 들어와 제주 유생들에게 학문과 예절을 계몽했던 이세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도통의 사상적 세계 속에 가능했던 것이다.

조광조의 친구인 김정은 그의 학문이 이미 自得과 獨得處가 열려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1년의 유배생활을 뒤로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다. 제주 유배시 그는 金良弼과 文世傑 이 두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특히 김양필에 대해서는 김정의 애정이 컸었던 것 같다.<sup>31)</sup> 김양필은 종종 때 사마시에 급제하여 제주교수를 역임하여 후진 교육에 공이 많았는데 조광조와 함께 김굉필의 제자였던 김안국의 문인인 심연원과도 교분관계가 깊었다.<sup>32)</sup> 심연원이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제주의 지방 자제교육을 위하여 鄉學堂을 설립하고 明倫堂을 중수할 때 김양필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밖에 김양필은 벽지 자제교육을 위하여 김녕정사나 월계정사를 건립하는데 진력하였다.

이렇게 김정과 김양필의 관계처럼 사제형식을 갖춘 만남도 있긴하지만 홍유손이나 유희춘 혹은 정은, 송상인, 신득연, 홍무적처럼 제주 유생들과 직접적인 관계맺음은 없으나 제주의 교학질서를 편성함에 있어 간과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도 많다. 비록 사제동행이라는 실질적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유배인들과 제주 유림과는 도통의 영향아래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세계 안에서 서로를 공유했고 서로 같은 이해와 가치평가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만남들이야말로 제주 유림의 정신

31) 土人生員 金良弼外 識文者絕少(濟州風土錄)

32) 沈連源序……與教授金君良弼 概然興嗟即 有重新之志也(耽羅志, 學校條)

사를 살피우는 기본 원동력이었고 치열한 사상적 전개를 가능케 한 기본 자양분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송시열의 경우인데 송시열의 적거는 백여일밖에는 안되지만 당대의 거유요 석학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파장을 짐작할 수가 있다. 즉 그의 내도 자체가 제주의 정신사에 하나의 충격이었으며 자극이었던 것이다. 애초 스승의 일이란 단지 자극을 주는 데까지 만이다. 즉 움직임이 일어나 깨도에 오르기까지이다. 그 다음의 발전은 전혀 제자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83세의 고령으로 내도하여 주자대전을 읽고 제문을 짓고 또한 「論孟問義通攷」를 저술하는 등의 그 집요한 의식의 집중, 이 집중이야말로 송시열의 가르침의 본래적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제주 유생들과 직접적인 사제동행의 관계는 갖지는 않았으나 참다운 정신의 치열성을 가르쳐준 셈이다. 이밖에 명·청 교체의 격변기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주학적 도통이 무너지는 것인만큼 魯周의 大義가 또한 절규되었고 그런 명분을 통하여 夷狄의 침략에 항거하는 민족의 저항이 斥和의 이름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講議를 대표한 인물이 곧 유배인 정은, 목민관 김상헌임을 감안할 때 그들의 영향력이란 다른 무엇보다 신뢰로운 것이었다.

애초 도통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사람인 송시열의 내도가 제주 유림에게 慶福이었다면 마찬가지로의 도통의 김상헌이나 최익현의 내도 그리고 기정진과의 인연은 차라리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목민관으로서 내도했던 김상헌은 鄭應禎과 사제의 인연을 맺게되는데 정응정은 문과에 급제하여 軍資監正이 되고 만년에 후진 교육에 종사를 함으로써 김상헌과의 만남을 제주 정신사를 살피우는 충분한 계기로 활용하게 된다. 김상헌의 영향은 정응정의 가통을 통해 정응정→정희관 등으로 승계된다.

최익현 또한 李基濂과 사제동행의 관계를 갖는데 이 흐름은 최익현→이기은→김병로로 이어짐으로서 조선조 말의 제주 정신사를 다양하게 한다. 특히 이기은으로 승계된 흐름은 그의 가통을 통해서도 전파되었는데 이기은은 제주시 올라리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전파했으며 그의 아들 이용호는 당대를 풍미한 한학자로 이름을 날릴뿐만 아니라 최익현에게서 풍기는 위정척사류의 분위기를 이어 받고 한말의 시대적 상황을 예리하게 고통하기도 한

다.<sup>33)</sup> 특히 이기온은 정응정의 후손인 정희관과도 교류가 깊었는데 이들의 교류를 보면 조선조의 제주의 교학계보가 어떠한 맥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된다. 이기온의 아들 이용호는 아버지로서 이어지는 최익현의 영향만이 아니라 그의 스승인 高性謙에게로 이어지는 기정진의 영향 또한 받고 있는데 이른바 唯理論을 정착시킴으로써 궁극적인 보편자를 찾고자 했던 기정진의 노력은 제주에서 고성점→이중발로 이어지고 이중발은 그러한 영향력들을 슬기롭게 소화시켜 고지규, 고사규, 고경수, 고영중, 강병일 등의 제자들을 문하에서 배출시킨다.

원래 이기온, 이용호는 경주이씨 국당공파 제주 입도조가 되며 이황의 재전이 되는 유배인 李瀾의 후손들이다. 이익의 가통은 은혜로운 만남들의 연속이었는데 이익의 증손이 되는 李重發은 도통의 큰 인물인 김만기의 아들, 유배인 김진구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중발의 6세손이 되는 이기온은 최익현에게서, 전술했듯이 이용호는 기정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한 가문이 직접·간접으로 4~5명의 도통의 인물과 만남을 가졌던 것이다. 이런 보기 드문 만남을 두고, 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만난다. (즉 찾는다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sup>34)</sup>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익의 후손들이 이러한 은혜를 갖을 수 있었던 원인은 이익 자신이 뿌려논 땀들 때문이었는데 즉 이황→정구→이익으로 이어지는 학문적 분위기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이익 자신은 제주의 정신사를 대표할만한 인물들인 高弘進과 金晉鎔을 직접 가르침으로써 척박한 유배지의 분위기를 바꾸어 나간다. 김진용은 제주에서 문명을 떨친 대표적인 학자로 기록이 되는데 목사 이희를 도와 藏修堂을 세워 유업을 일으켰고 김진용을 필두로 그의 후손들은 제주에서 문사의 집안으로 그 기반을 확고히 한다. 고흥진 또한 지리학에 밝았고 문과에 급제 성균관 전적이 되는 등 훗날 김진용에 버금가는 교학활동을 벌인다. 이익의 가통과 마찬가지로 이익의 두제자 김진용, 고흥진의 가통도 주

33) 나라가 망하자 오라동에 「朝雲臺」를 설치 國恥를 씻으려했고 3.1운동때도 만세운동을 벌였다고 전함.

34) OF. Bollnow, *Existenzphilosophie und Pädagogik*, 이규호역 「실존철학과 교육」 배영사, pp. 105-124 참조.

목되는 제주의 학맥을 형성하며 고흥진과 교류가 깊었던 현치적의 가통 또한 제주의 학맥을 풍성케함에 일익을 담당한다.

고흥진의 후손 가운데 高萬膺은 이익의 후손인 이증발을 가르쳤던 김진구의 또 다른 제자인데 김진구에겐 고만침과 이증발 외에 吳廷賓이라는 제자도 있었다. 오정빈은 행복스러운 학인이었다. 김진구를 스승으로 하기 전에 신명규와도 사제관계를 하고 있었으니 성흔→신명규, 김만기→김진구로 이어지는 거유들의 가르침을 한꺼번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정빈에겐 행운이었던 것이다. 사실 인간은 만남에 있어서 시험되는 것이다. 만남 사람의 힘 앞에서 그는 그에게 있어서 참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되고 그 충격 앞에서 인간은 그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오정빈은 신명규, 김진구와의 만남을 통해 성숙함을 드러냈고 그 성숙함은 그의 가통을 통해 이어갔는데 그의 후손 吳眞祚는 예학에 뛰어났고 평생 후진양성에 보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곧 제주 교학질서의 성숙이기도 하였다.

김진구의 왕성한 사제관계 형성은 조선조 제주교육사상사의 분위기를 이기가 창도한 기호학파류의 그것으로 편성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증발이나 고만침, 오정빈의 가통은 제주의 가장 굵은 학맥들이는데 이들 모두가 기호학파류의 김만기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고 또한 이세번의 가통 역시 이세번이가 기호지방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또한 송시열이나 김상헌 혹은 유배인 이존중의 스승인 이재 그리고 유배인 조정철의 스승 박필주 유배인 신임의 스승 박세채 등을 고려해 볼 때 기호학파의 분위기가 드세다. 이밖에도 이세번의 10세손 이평계가 「氣發理乘一途說」을 연구하였다든가 현치적의 후손인 玄德聞이가 「全南儒林薦」을 통해 칭찬의 글을 받았다는가 혹은 제주유림과 기정진과의 관계맺음 등의 흔적을 통해서도 기호학파의 전통을 엿볼 수가 있는데 물론 지리적인 이유로 영남학파보다는 기호학파에 접근하기가 용이했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퇴계학파로 대별되는 영남학파의 분위기가 그렇게 미미한 것만도 아니다. 이를테면 이익의 학문적 분위기는 이황→정구→이익의 계보로 보아 가장 퇴계스러우리라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 이렇게 볼때 이익의 제자인

고흥진이나 김진용의 학문적 분위기 그리고 이중발로 승계되는 그의 가통의 분위기는 김진구에 의해 주도된 기호학과와 그것과 또 다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조선조의 제주 정신사 분위기는 기호학과나 영남학과 등의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얽혀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유배지라는 특이한 위치 역할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조선조의 제주도는 다양한 사상의 공존지대였다는 말이 된다. 이른바 ‘退·粟의 網頂’이 머무르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제주의 정신사는 새로운 활력을 가질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보강하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김정희의 활동일 것이다.<sup>35)</sup> 애초 실학을 성리학적 질서의 반정적 흐름으로 이해하게 되면 김정희의 실사구시적 교학계보는 문명 색다른 흐름이 될 것이다. 김정희는 제주 유배시 강사공, 박계첨, 허숙, 이시형, 김여추, 이한진, 김구우, 강도순, 강생 등과 번다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박계첨, 김구우, 강도순 등은 제주 명필로 손꼽혔고 특히 김구우는 추사의 독특한 시서화 일치의 교학사상을 제주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큰 몫을 한다. 분명 공소한 관념적 학문을 떠나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천적 교육관을 강조한 김정희의 주장은 제주 유림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을 것이며 아울러 부담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자극과 부담은 깨달음을 유도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통찰된 깨달음이야말로 인생관적 전회를 가져다 준다. 인생관적 전회는 세계관의 전회이며 정신사의 전회인 것이다. 김정희의 실사구시적 가르침은 제주 교육의 사상사적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유배인들의 교학활동과 제주유림의 사상적 전수과정은 나름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제주도 자체의 자생적인 움직임도 힘을 갖게 되었던 것 같고 조선조의 말기에 접어들수록 그러한 움직임은 가속화된 것 같다. 끝림서원 원장이었던 邊是重이 金衡重이나 邊聖運 혹은 邊聖遇를 가르쳤던 것도 그

35) 이에 대해서는 拙稿, 추사의 제주교학활동연구, 참고할 것.

러한 흐름이며 邊景祐→姜繼遇의 관계도 그렇고 金龍徵이 金命岳과 安良弼과 맺은 관계 혹은 玄維純이와 庸應世의 관계맺음 등은 나름대로의 교학질서를 체계화시킨 노력들이었는데 이제까지 유배인들이 제주교학 흐름의 촉진자 역할을 하였다면 이러한 자생적 움직임은 제주유림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촉진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제주의 정신사는 나름의 활력을 생산적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능했던 것은 꾸준히 작용되었던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을 통한 도통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도통은 교학질서의 방향각각을 설정시켜 주었고 정치·경제·사회의 중세적 질서를 유지시켜준 버팀목이었기 때문이다.

제주에 도통의 영향력이 가장 빈번했던 시기는 조선조 중기로서 사회와 당쟁이 치열하던 때였다. 다시말해 사회와 당쟁의 부산물로서 행형제도인 유배 때문에 빈번히 유배인들이 내도하였던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유배인들이 사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도통 인물들의 학문과 사상적 영향력이 자연스레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조 중기의 교학사상적 특징은 조광조에 의한 지치주의가 좌절되고 잇따라 일어난 잦은 사회로 말미암아 사풍은 땅에 떨어지고 유림은 보신의 방도로서 학문적 방향을 예교적 심상수양주의 쪽으로 돌려 이른바 예학이 발달하였다. 도통의 그러한 분위기는 그대로 제주 유림에도 전파되었는데 유배인들이 제주도민의 풍속을 교화했다든가 예절을 계몽했다는 등의 언급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곧 예교적 교학사상을 반영하는 사례들인 것이다. 비록 제주에서의 예학은 학파나 학통이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학문적이라기보다는 禮說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익의 제자인 고흥진과 교류가 깊었던 玄治績의 후손인 玄德闡의 저술활동이나 전남유림 등과의 교류관계를 보면 그리고 김진용 이평계 이용호 등의 학문적 관심 등을 보면 그 진지도가 만만치않다.

조선조 제주교육의 두드러진 모습 중의 하나는 학맥형성이 학통이나 학파의 흐름 대신 주로 가통은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학통이나 학파가 형성이 안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교학적 영향력의 주요 근원지가

되었던 유배인들의 유배인이라는 불확실한 위치 때문이라 여겨지는데 이를 때면 김정이나 김양필이나 문세걸을 가르치긴 했지만 곧이어 사사되었기 때문에 일관성을 기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 한 예이다. 다행히 유배기간이 긴 유배인일 경우에는 학파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흐름들을 보이긴 하나 미미한 흐름들일 뿐이다. 이밖에 이유로 조선조의 제주가 풍토적인 측면에서 아직 영남이나 기호지방에 비해 교학조성의 여건이 미비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들 수 있는데 영남 사림파가 형성된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영남의 풍부한 풍토적 여건 때문이기도 해서 아직 조선조의 제주 풍토가 정선문화의 맥을 형성하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나아가 학파형성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제주도가 철저히 약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길재의 낙향이 영남 사림파 형성의 근본 계기가 되었듯이 누구보다 위치가 확실하고 영향력이 클 수 있었던 제주도인으로 고득중이나 양팽손<sup>36)</sup> 등이 제주도에 거주했었다면 그 양상은 크게 달라졌었는지도 모른다. 학통이나 학파는 사람에 의해 준비·촉발되는 것인데 본도인으로서 제주도를 자극시킬 인물이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학통·학파 형성이 안된 이유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조선조의 제주교육 사상은 유배인들을 통한 도통의 영향력이 클 수 있었던 것이며 조선조의 제주 교육을 이해함에 있어 도통이 준거점이 되는 것이다.

### Ⅲ. 結 論

본 연구는 조선조의 제주교육의 사상사적 흐름을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으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제주도에서의 교육사상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책임있는 논의를 회피하고 있음을 자인한다. 이러한 여러 결점의 보완은 앞으로의 계속된 후속작업을 통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전무했던 관계에서 시도적 성격을 띠

36) 특히 學圃 양팽손은 기묘선류로서 도통의 영향력을 가장 충실히 전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여전히 보완 및 수정의 여지를 갖고 있음을 솔직히 자인한다. 특히 본론의 4) '조선조 제주교육의 전개'가 본 연구의 핵심 부분인데 핵심 구실을 못하고 사족에 머무른감이 없지 않다. 앞으로의 계속된 향로사료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이 부분을 밝혀나갈 예정이며 3) '도통과 제주유배인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필자가 후속작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朝鮮朝 濟州流配教學史」에서 보다 철저하게 규명이 될 것이다.

조선조 제주교육사를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도사, 사상사, 기술사, 등등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하는데 본고는 사상사를 도통에 국한시켜 특히 학맥의 계보파악에 주력했다. 따라서 지엽적인 논의에 머무를 위험성이 있긴하지만 애초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사람이란 무엇인가의 질문과 동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 '사람'의 파악에 주력했던 것이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도통이라는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 제주사람들을 연관시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적 방법론이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조선조라는 시대적 성격과 제주도를 더불어 이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안이지 않는가 생각이 된다. 객관적인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선조 제주 교육 사상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참고적으로 도표(부록)를 만들어 보았다.

## 참 고 문 헌

- 姜數錫, 典放大方(京城, 漢陽書院刊)
- 姜龍三, 濟州의 人脈(서울, 태광문화사) 1980.
- 國朝人物考(서울대 도서관刊) 1978.
- 經國大典(경인문화사刊) 1972.
- 金瑄, 海東名臣錄(동화출판공사刊) 1977.
- 金泰能, 濟州島史論攷(서울, 세기문화사) 1982.
- 大典公通(景文社刊) 1978.
- 裴宗鎰, 韓國儒學史(서울, 연세대출판부) 1976.
- 朴世采, 東儒師友錄(弗威文化社刊)
- 朴用厚, 濟州島誌(서울, 白映社) 1976.
- 朴用厚, 南濟州郡誌(서울, 상조사) 1978.
- 梁淳秘, 朝鮮朝 流配文學研究(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 李萬珪, 朝鮮教育史(서울, 을유문화사) 1947.
- 劉明鍾, 韓國思想史(대구, 以文社) 1981.
- 丁淳睦, 退溪의 教育哲學(서울, 지식산업사) 1986.
- 濟州島教育史(제주도 교육위원회刊) 1986.
- 濟州島教育通史(제주도 교육연구원刊) 1979.
- 張志淵, 朝鮮儒學淵源(아세아문화사刊)
- 耽羅文獻集(제주도 교육위원회刊) 1978.
- 耽羅錄(제주도문화방송刊) 1976.

항목	도통(문묘 및 시원)		제주유배인 및 무인단	제주유림	시기
	문묘배향유형 및 도통중심인물				
1392	정종유 : 길재 - 김숙자	김홍희		제주교단정신사	전
대종					
세종					
문종					
세조					
예종			이악동(1470)		
			홍유손(1498, 제주 8)		
성종			이세번(1520, 대정 7)		
중종			김정(1520, 제주 1)		
인종			김연철(1534)		
			유희준(1547, 제주)		
명종			송상인(1612, 대정 10)		
			(정인룡) → 정운(1618, 대정 10)		
선조	이익(1618, 제주 5)				
	홍부석(1646, 제주 3)				
인조	(신민철) → 신영구(1673, 대정 6)				
효종	(1601)				
현종	(윤승) → 이진유(1725, 무지)				
	(1689, 제주, 벽여인)				
숙종	신익(1722, 제주 12)				
	김진구(1689, 제주 5)				
	김준택(1714, 대정 10)				
	김정하(1727, 대정)				
경종					
경조(장조)	이훈중(1751, 정외 2)				
	(조영순) → 조정철(1840, 대정 9)				
정조(문조)					
헌종					
철종	양현수(1864)				
고종					
1894년	총 75명		(1873, 제주 2)		